

근대와 남성의 성: “이루지 못한 쾌락” 시와 남성 정체성의 위기*

전인한

서울시립대학교

I

왕정복고시대(1660—1688).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이었던 셈이다. 당신이 귀족 남성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여성‘들’을 현혹할 치명적인 매력과 여성‘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주의 용어를 빌리자면, “항상 이미”(always already) 준비된(erected) 남근만 장착하고 있다면.

남성의 몸이, 특히 그의 특정 부위가 이렇게 부각되던 시절이 있었을까? 위로는 찰스 2세부터 밑으로는 귀족 남성 리버틴(libertine)들까지 남성들이 마음껏 여성을 유혹하고 마음껏 여성을 즐기고 마음껏 여성을 버리던 시절이었으니까 말이다.¹ 찌질한 부르조아 것들과 남성 중의 남성 리버틴들을 구획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선(線)은 없었던 셈이다. ‘여성들을 유혹할 능력이 있는 우리. 여성을 멀리

* 이 논문은 201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¹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한국어로 libertine을 적절히 번역할 수 없기에 ‘리버틴’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난봉꾼’이 가장 가까운 번역이긴 하지만 ‘난봉꾼’으로 번역하면 리버틴의 성적 인 방종만을 강조할 뿐 그들이 또한 가지고 있었던 회의주의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적 사유를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척 하는) 너희들. (위선자들!!) 너희들의 아내와 딸을 마음껏 유혹하고 만족 시켜주고 그리고는 버릴 수 있는 우리. 그리고 버려진 후에도 우리를 여전히 그리워하는 너희들의 여자들. 화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들’.

그러나 왕정복고시대. 더할 나위 없는 최악의 시절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리버틴들에게 자신들의 아내와 딸들을 농락당한 부르조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리버틴들에게 농락당한 여성들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리버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왕정복고시대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위기의 시대이기도 했으니, 위기가 바로 자신들에 의해 초래되었고 극복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자신들 권력의 근원을 자신들의 생래적 신분에서 찾지 않고, 다시 말해 자신들이 단지 귀족이라는 점에서 단지 자신들이 남성이라는 데에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의 절대적인 권력의 근원을 남성성 즉 여성들을 유혹할 수 있는 능력, 여성들을 성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서 찾았을 때, 이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신들의 남근과 일치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우월성을 확인하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치명적인 남성성의 위기를 자초한다. 남근이 이들이 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할 때, 이들의 사회적 우월자로서의 정체성 더 나아가 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은 해체되어버리고 말고, 아울러 은밀하게 남근의 권위에 기대어 있던 남성 전체의 권위도 또한 가부장제의 권위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²

² 리버틴들이 왜 그들의 권위의 근원을 남근에서 찾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 글의 목적은 권위의 근원으로서 남근이 왜 어떻게 무너져가는지를 영국왕정복고기에 쓰여진 일련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남근이 영국왕정복고기에 전면화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 번째는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이전 시기 즉 권위(Inter-Regnum)에 청교도에 억압되었던 욕망의 대폭발이다. 청교도들에 대한 반감이 그들에 의해 억압되었던 욕망의 완전해방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불충분한 바, 남근의 등장에서 우리가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왕정복고기를 풍미했던 리버틴들의 철학적 사유이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회의주의는 인지할 수 있는 감각 경험만을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근거로 인정하는 존재론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즉 그들이 느끼는 쾌락이나 고통만이 그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인정되게 되면서, 육신의 쾌락이야 말로 그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고선(至高善, *summum bonum*)으로 인정되게 되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체스터(John Wilmot, Earl of Rochester)의 시에서 드러나는 육체적 쾌락의 가능성에 대한 집요한 심문과 회의는 육체적 쾌락의 추구에 철학적 바탕이 있었다는 점을 적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스스로에게 만든 지옥: 로체스터 시에 구성된 몸쓸 사랑의 좌절」 참고. 따라

이런 의미에서 이 시기에 영국에서 “이루지 못한 쾌락”(Imperfect Enjoyment) 시들이 프랑스 16, 17세기의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의 충실한 번역으로 그리고 미묘한 전유로서 쓰이면서 영문학의 소장자로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³ 이 시기가 남성성의 문제를, 남성성 문제의 극복과 좌절의 현장을 천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들이 남성성의 최대 위기 국면을 정면으로 다룸으로써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세 편의 시들은 프랑스 16, 17세기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과 분명한 거리를 보여주는 시들이다.⁴ 이 시들은 프랑스 시들을 바탕으로 했으나 이 시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 거리의 공간에 남성성의 위기를 그리고 남성 정체성의 위기를 기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영국 왕정복고기의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 중 3편의 시, 즉 에쓰리지(George Etherege)의 『이루지 못한 쾌락』(“Imperfect Enjoyment”, 1672), 벤(Aphra Behn)의 『실망』(“The

서 남근을 통한 쾌락을 마음대로 쫓는다는 것은 자신이 행복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자신들과 그럴 수 없는 (자신들 권위에 대한 도전자들인) 부르조와나 여성들을 구획함으로써 자신들의 권위를 확인하는 수단이 된다. 이런 점에서 귀족으로서의 권위, 남성으로서의 권위, 남성 정체성 뿐만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남근의 성공에 달려있었던 셈이다.

찰스2세의 실추된 왕으로서의 권위와 그의 축 늘어진 남근을 동일시한 로체스터의 악명 높은 『찰스2세 전하에 대한 풍자』(“A Satyre on Charles II”, 1674)는 남성적/정치적 권위와 남근의 힘을 일치시킨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³ 퀴턴스(Richard E. Quaintance)는 16, 17세기에 쓰여진 프랑스의 “이루지 못한 쾌락” 시로 벨로(Rémy Bellau)의 『일을 치룰 수 없는 장』(“Jan qui ne peult”, 1577), 레니에(Mathurin Regnier)의 『불능』(“Impuissance. Imitation d’Ovide”, 1613), 베이(Charles Beys)의 『이루지 못한 쾌락』(“La Iovissance Imparfaite. Caprice”, 1651), 모랑글르(Payot de Morangle)의 『놓친 기회』(“L’occasion perdue. A Cloris. Satnce”, 1654)와 캉뜨낙(Benech de Cantenac)의 『만회한 놓친 기회』(“L’occasion perdue recouverte”, 1660)를 들고 있다. 이 중에서 베이와 캉뜨낙의 시가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캉뜨낙의 시는 영국에서 작가불명의 『만회한 놓친 기회』(“The Lost Opportunity recovered”, 1682)로 직역되었고 벤은 이 시의 첫 부분을 전유해 『실망』을 짓는다. 마찬가지로 베이의 시는 에쓰리지의 전유 대상이 된다. 영국에서는 17세기에 다섯 편의 “이루지 못한 쾌락” 시가 쓰여진다. 이 글에서 다루려고 하는 세 편의 시와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작가불명의 캉뜨낙 시의 직역본 그리고 작가불명의 『이루지 못한 쾌락』(“The Imperfect Enjoyment”, 1674)이 그것이다. 프랑스 16, 17세기의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과 영국 왕정복고기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의 영향 관계에 대해서는 Quaintance를 참고할 것.

⁴ 작가불명의 『이루지 못한 쾌락』(1674)은 프랑스 시의 직역은 아니나 프랑스 “이루지 못한 쾌락” 시의 문법과 정서를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한다.

Disappointment”, 1680), 로체스터(John Wilmot, Earl of Rochester)의 『이루지 못한 쾌락』(“The Imperfect Enjoyment”, 1680)을 남성의 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시도로 읽음으로써 근대의 여명기에 리버틴들이 더 나아가 남성들이 맞이한 남성성의 위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이 글이 읽으려고 하는 세 시를 포함한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황 즉 남성의 “문전처리 실패”(삽입 전 사정, premature ejaculation)는 분명 남성들에게 수치와 공포의 대상이겠다. 여성을 유혹해 침대로 끌어들이는 데 (겨우) 성공해 놓고서는 본인의 약속(자신과 연인의 쾌락)을 실현하려는 순간, 일이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버렸으니 쓸모없는 남자 아니 남자구실을 못하는 남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서 질문 하나를 던질 수 있겠다. 삽입 후에 사정을 하건 삽입 전에 사정을 하건, 여성이 쾌락을 느끼건 못 느끼건, 남성은 일정 수준의 쾌락에는 이른다. 사정을 하는 한 남성의 쾌락은, 그 정도에 있어선 차이가 있을지언정, 성취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남성의 성공적인 성행위 수행의 기준은 본인의 쾌락이라기보다는 상대 연인의 쾌락 여부가 되는 셈이다. 왜 여성의 쾌락이 성행위 성공의 관건이 되어야만 하는가? 여기에서 남근중심주의를 기저에 깔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남성성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근저에는 여성을 황홀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자 남근의 권위, 그리고 남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때문이다. ‘남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결핍자(homme manqué) 너희는 절대 복종할지어다. 스스로 쾌락을 얻을 수 없는 너희에게 우리의 남근이 쾌락을 줄 지어니 우리의 남근과 남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복종할지어다!’ 문제는 남근의 약속은 약속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고 따라서 가부장제에서 권위의 근간이 남근인 한 남근의 권위와 불안은 한 동전의 양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겠다.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남근의 불안을 안고 살 수 밖에 없다. 언젠가는 자신이 남성 구실을 할 수 없는 날 즉 자신이 남성으로서 ‘결핍’될 날은 오고

야 말기 때문이고 이런 점에서 남근의 권위에 기대는 남성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나 진배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남근의 불안은 영국 왕정복고기 문학에서만 다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찍이 로마시대에 오비드(Ovid)가 『아모레스』(Amores) 3권 7장(III. vii)에서 남성의 민망한 낭패를 다룬 바 있고, 페트로니우스(Petronius) 역시 『싸티리콘』(Satyricon) 128장부터 140장에서 남성의 망신과 그 망신을 만회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드러낸 바 있다. 또한 영국 왕정복고기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의 모델이 된 16, 17세기 프랑스 일련의 시들에서도 남성의 유혹(혹은 겁탈) 시도, 여성의 형식적인 반항과 이어지는 순응, 남성의 조기 사정, 불을 다시 지피려는 노력의 실패, 남성의 수치, 이를 만회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과 성공)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이루지 못한 쾌락” 시의 문법을 이루게 된다.

그런데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영국왕정복고기에 변주가 되기 전에는 이들 시에서 남성의 낭패는 아직 남성 정체성의 위기로까지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오비드의 시에서 화자는 낭패를 당한 후 얼마 전까지 자신이 왕성한 남성이었음을 강변한다. “그러나 얼마전 나는 금발 클리드를 두 번 연속 만족시켰었고 아름다운 피토와 리바스를 세 번 연속으로 만족시켰었지. 내 기억에 코리나가 나를 요구했을 때는 하룻밤에 아홉 번 나를 제공했었지”(Yet not long ago I satisfied blonde Chlide twice running with my attentions, thrice fair Pitho and thrice Libas; I remember Corrina’s asking from me and my supplying nine measures in one short night, 477).⁵ 얼마 전까지 여러 여성들을 만족시키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화자의 주장은 현재의 곤경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자신의 남근의 힘을 은근히 과시하기 때문에 현재의 곤경을 근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것으로 위치시킨다. 이어서 낭패의 원인을 자신이나 자신과 여성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다른 이들이나 신의 저주에서 찾는 화자의 모습(477)에서 우리는 남성 정체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찾아볼 수는 없다. 그는 그 순간 창피하기는 하나 절망하고 있지는 않다. 페트로니우스의 『싸티리콘』에서도 남성 정체성에 대한 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131장에서 140장까지 계속되는 남성의 힘을 찾기 위한 화자의 노력은⁶ 남성의 낭패를 내재적인 이유에서 연유했

⁵ 오비드의 『아모레스』의 텍스트로 이 글은 로엵 에디션(Loeb edition)을 사용하였다.

⁶ 페트로니우스의 『싸티리콘』의 텍스트 역시 로엵 에디션(Loeb edition)이 사용되었다.

다기보다는 외재적인 이유(신들의 저주)에 기인한 것으로 따라서 본원적인 것으로보다는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의 낭패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깡뜨낙의 시와 그것을 영국에서 직역한 작가미상의 시이다. 이 시들에서 주인공 라이센더(Lysander)는 유부녀 클로리스(Cloris)를 유혹해 침대에 눕히는 데는 성공하나 예상할 수 있다시피 낭패를 본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라이센더는 절치부심의 칼을 갖고 다음 날 다시 클로리스의 집에 잠입해 잠자는 클로리스를 덮치곤 클로리스의 의례적인 저항을 뛰어넘어 원래 그가 의도했던 바를 이루는 데 성공한다.

시간이 드디어 왔다네, 그들 둘다 황홀경에 빠질 시간이,
극도의 쾌락과 높은 만족을 통해,
이들 비둘기는 대여섯 번을 같이 황홀경에 빠졌다네,
그리고 매번 적극적인 리듬으로 춤을 추었다네.

The time's now come when they were both Entranc'd
Through their Excess of Bliss, and high content,
Five or six times these Doves together went,
And full as oft in active Measures Danc't.⁷ (381-84)

이 정도면 만회 정도가 아니겠다. 하룻밤의 낭패 후 그 다음날 즉시 대여섯 번의 운우지정을 성공시키는 라이센더의 모습에서 우리는 일시적 좌절을 더 큰 성공으로 보상하는 남성(자기 멋쟁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깡뜨낙/작가불명의 시들은 남성의 “문전처리 실패”에 대한 가장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우리 남성들이 잠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힘센 남성, 하룻밤 실패를 몇 배로 갚을지니 여성들이여 우리가 설사 미끄러질지라도 실망하지 말지어다. 그대들의 인내심은 더 큰 쾌락으로 보상받을지어니 그저 우리에게 복종 또 복종할지어다’. 그러기에 이들 시가 다루는 남성의 낭패는 당황스러우나 비장하지는 않다. (아직은) 남성의 끝이 아니라는 낙관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⁷ 작가불명의 시가 깡뜨낙 시의 충실한 번역이기에 여기에서는 작가불명의 번역만을 제공한다. 이 시의 텍스트로 이 글은 필립스(John Phillips)가 1682년에 편집한 『재치와 익살』(Wit and Drollery)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국왕정복고기에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이 변주되기 시작했을 때, 남성의 망신은 좀더 본연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국왕과 귀족 리버턴들이 전지전능한 자신들의 남근을 그들 권위의 전면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을 때 남근의 고민도 좀 더 근원적으로 심문당하기 시작한다. 영국 왕정복고기에 리버턴들은 불확실한 남근의 힘을 그들의 권위 더 나아가 남성 모두의 권위의 근원으로 전치시켰고 남근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남근의 낭패는 좀 더 깊이 심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이 다루려는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은 육체에 대한 묘사로 충만하더라도 야하지 않고, 남성의 낭패를 다루나 익살맞지 않고, 비장하고 치열하다.

III

에쓰리지의 『이루지 못한 쾌락』은 정체성의 위기에 직면한 남성들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려 했는지 그리고 이런 전략이 과연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에쓰리지의 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에쓰리지가 여성의 목소리를 봉쇄한다는 사실이다. 화자의 여성(그녀의 이름은 시의 마지막까지 감추어진다)은 그녀의 생각과 감정을 그녀의 목소리로 전달하지 못한다. 여성은 남성의 해석 속에서만 존재한다.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나눈 뒤에,
그녀는 내 사랑에 힘껏 저항하나 나 그저 즐거울 뿐,
그녀는 분노로 그런 것이 아니라 수줍음으로 그러지.
그녀는 그녀의 의지와 반해 내 적이라네.

After a pretty amorous Discourse,
She does resist my Love with pleasing force,
Mov'd not with Anger but with Modesty:
Against her will she is my Enemy.⁸ (1-4)

⁸ 에쓰리지의 텍스트로 이 글은 1672년에 출판된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Upon Several Occasions by Several Persons*를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본문 중에 행만을 표시하기로 하겠다.

그녀의 저항은 화자에게는 “즐거운” 것으로 해석되고 그녀의 반항은 이미 그녀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독자에게 제시된다. 그리고 이런 그녀는 이윽고 남성 뜻에 기꺼이, 적극적으로 복종하게 된다.

드디어 그녀 한숨을 쉬곤 반항을 그치네,
 그리고 나 그녀의 그 부분을 가져야하기에, 그녀는 나에게 모든 것을 줄 기세.
 그녀의 팔은 기쁨에 넘친 정복자를 포옹하고,
 그 쟁취하려던 장소로 나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네.

Sighing at length her force she does recall,
 And since I must have Part she'll give me All.
 Her arms the joyful Conqueror embrace,
 And seem to guide me to the fought-for place. (17-20)

에스리지의 화자는 시의 초반부터 여성의 감정과 사고를 자신의 목소리로 걸러냄으로써, 다시 말해 여성의 감정과 사고를 전유함으로써 자신의 “문전처리 실패”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를 봉쇄한다. 상호적인 육체적 쾌락의 장을 남성이 독점함으로써 만족하지 못한 여성으로부터 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봉쇄를 해놓은 셈이다.

에스리지가 남성 정체성의 위기에 대처하는 두 번째 전략은 화자의 “문전처리 실패”에 대한 묘사에 남녀간의 육체적 사랑을 묘사하는 전통적인 메타포인 공성전(空城戰)과 종교적 의식의 메타포를 개입시켜 화자의 육체적 실패를 공성전의 실패로, 종교적 헌신의 실패로 치환하는 것이다. 에스리지의 시에서 화자의 “문전처리 실패”는 직설적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두 메타포의 뒤에서 암시될 뿐이다.

내 수호성인에게 탄원해야 할 신전에 다가서자
 나 그만 신성한 문 앞에서 승배를 하네.
 아 잔인한 경우구나! 내 공격에 그리 오래 버티던
 도시가 드디어 내 뜻에 굴복하는 순간,
 승리에 너무 도취해, 나
 행복한 성벽 밑자락에 그만 쓰러져 죽어버리다니.

Come to the Temple where I shou'd implore
 My saint, I worship at the sacred door.
 Oh cruel chance! the Town which did oppose
 My strength so long now yields to my dispose
 When, overjoy'd with victory, I fall
 Dead at the foot of the surrender'd wall. (25-30)

에쓰리지의 시에서 여성의 불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곤 찡그렸네, 우리가 이미 해버렸다는 것을 알곤, / 그녀 생각에는 우리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생각한 그 유희를”(She blush'd and frown'd, perceiving we had done; / The sport she thought we scarce had yet begun, 39-40). 그러나 그녀의 불만은 남근의 위기, 남성 정체성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성의 목소리를 봉쇄하고, 자신의 실패를 수사로 감싸놓은 화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실패를 여성이 불필요하게 수줍었던 탓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다. “아, 나는 말했다네, 내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탓하시오. / 이건 너무 심한 수줍음 탓이랴오”(Alas, said I, condemn your self, not me; / This is th' effect of too much modesty, 41-42). 이 화자는 영리하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자신의 실패를 전가하지만 그 전가가 동시에 여성에 대한 칭송도 되게끔 하기 때문이다. ‘여성’이 너무 수줍음을 타서’라는 화자의 주장은 이 여성이 전통적인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이 지기도록 되어있는 ‘순결’이라는 덕목을 지키려 했다는 말이 되기에, 이 여성을 화자에게는 저항했지만 남성 중심 사회의 덕목에는 충실했던, 다시 말해 소유의 대상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던 여성으로 칭송도 하는 셈이다. 이런 화자의 책임전가와 칭송의 전략은 시의 마지막에서 다시 되풀이 된다. “필리스여, 이와 같은 위로가 당신의 슬픔을 달래게 하시오, / 당신이 조금만 덜 아름다웠다면 당신은 더 만족했었을 것이요”(Phyllis, let this same comfort ease your care, / You'ad been more happy had you been less fair, 49-50). 자신의 실패가 여성의 아름다움 탓이라는 화자의 주장은 여성의 정조관념에 대한 칭송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여성에 대한 칭송을 확인한다. 어느덧 시는 남성으로서의 실패에 대한 토로라기보다는 그것을 기화로 한 여성에 대한 칭송으로 전화된 셈이다. 이런 점에서 에쓰리지의 『이루지 못한 쾌락』은 “남성의 자기충족성(self-sufficiency)을 언어에 대한 지배와 동일시 하면서 여성적인 것을 군사적인 이미지와 종교적인 이미지의 그물로 가두는 데

성공한다”(Brady 185). 여성의 몸에 대한 지배를 언어에 대한 지배로 치환함으로써 에쓰리지의 화자는 남근의 위기와 남성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셈이다.

IV

그러나 에쓰리지의 전략은 여성의 말을 남성이 전유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여성이 성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 할 때, 여성이 남성의 실패에 대해 솔직히 실망을 토로할 때, 남근은 다시 위기에 봉착한다. 이제 남성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족시켜주어야 했으나 만족시키지 못한 상대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벤은 문제적이다. 여성출입업금이었던 전업작가의 영역에 뛰어 들어서 켄(남근의 상징이 됨은 물론이다)을 휘두르려 한 것부터가 당대 남성의 시각에서 보자면 문제였을 뿐더러, 심지어는 킬리그류(Sir Thomas Killigrew)의 『토마소 혹은 방랑자』(*Thomaso or the Wanderer*, 1663)를 제멋대로 『방랑자』(*The Rover*, 1677)로 도용해서는 극의 마지막에 창녀 안젤리카 비앙카(Angelica Bianca)로 하여금 그녀를 배반한 주인공 윌모어(Willmore)의 가슴에 피스톨(역시 남근의 상징이 아니 될 수 없다)을 들이대게 한 여자가 아니던가? 걸핏하면 남근을 잡고 휘두르려는 이 여성작가가 이번에는 남성에게 가장 아픈 “문전치리 실패” 문제를 다룰 때, 남근은 이제 더 이상 남성성의 상징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⁹ 『실망』에서 벤은 정사장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교묘히 전도시킴으로써 “남성 정체성을 정의하는 명제로서의 권력을 심문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그리고 윤택있게 전통적인 젠더 역할과 젠더 역할이 지탱해주는 억압의 구조를 심문하”기 때문이다(Zeits and Thoms 501).

라이센더와 클로리스의 조우를 다루는 이 시는 얼핏 보면 남성의 여성 겁탈시

⁹ 벤의 전략이 더 교묘한 것은 『실망』의 화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시를 남성이 털어놓는 남성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로 위장한다는 점이다. 이 시가 처음에는 로체스터의 작품으로 오인되어 로체스터의 작품집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는 사실은 그녀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벤은 여성의 시각을 교묘히 남근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에 투입시켜놓으면서 남근의 권력과 이에 기반한 남성 정체성을 내파한다.

도, 여성의 형식적인 반항과 이어지는 순응, 남성의 때 이른 사정, 불을 다시 지피려는 노력의 실패, 남성의 수치로 이어지는 기존 “이루지 못한 쾌락” 시의 문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라이센더와 클로리스의 성적 조우에서 표면적으로는 욕망의 주체가 남성이고 여성은 객체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이런 성역할이 전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 그의 완력을 받아들이면서도, 부드럽게 저항하네.
 그녀 손은 그의 가슴을 부드럽게 민다네,
 그를 밀어내기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기기 위한 의도로.
 그가 그녀의 발치에 떨면서 누워있을 때엔,
 저항을 하는 것 소용없다네.

Permits his force, yet gently strove;
 Her Hands his Bosom softly meet,
 But not to put him back designed,
 Rather to draw him on inclined:
 Whilst he lay trembling at her feet,
 Resistance 'tis vain to show;¹⁰ (14-19)

클로리스는 라이센더의 욕망에 저항하지 않는다. 단지 저항하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고 실제로는 라이센더의 욕망에 불을 지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클로리스의 욕망, 즉 성적 쾌락에의 욕구이다. 왜냐하면 여성도 쾌락에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 여성은 성적 쾌락의 대상에서 주체로 변하게 되고 남성에게는 여성‘과 함께’ 쾌락에 다다라야 한다는 의무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이다. 『실망』에서 클로리스는 영리한 여성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역할과 자신의 욕망을 교섭할 수 있는 여성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녀의 저항은 형식적이면서 동시에 유혹적이다. 이런 클로리스의 교섭능력은 그녀가 라이센더에게 그만할 것을 호소할 때 극대화되어 드러난다.

¹⁰ 『실망』의 텍스트로 이 글은 토드(Janet Todd)의 에디션을 사용하였다. 이후에는 본문 중에 행만을 표시하기로 하겠다.

그녀는 소리쳤다네—그만두세요, 그만두세요—당신의 헛된 욕망을요,
 안 그러면 저 소리 지르겠어요—어떻하시겠어요?
 제 소중한 정조는 당신에게조차
 드릴 수 없고 드러서도 안 되요—가세요,
 아님 차라리 제 목숨을 취하세요. 제 목숨의 제일 중요한 부분
 저 이미 제 마음이 정복될 때 당신께 드렸답니다.

She cried — ‘Cease, cease — your vain desire,
 Or I’ll call out — what would you do?
 My dearer honour even to you
 I cannot, must not give — retire,
 Or take this life, whose chiefest part
 I gave you with the conquest of my heart.’ (25-30)

표면적으로 클로리스는 그녀가 해야 하는 것, 즉 그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라이센더에게 저항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미 ‘내 마음은 당신에게 정복되었다’, ‘당신에게조차도 더 소중한 명예는 줄 수 없다’ 등의 표현은 이미 자신도 라이센더에게 매혹되었다는 것을 은밀히 암시한다. 이 구절에서 결정적인 것은 반복되어 등장하는 “—”이다. 그녀 말의 호흡을 끊는 이 부호는 그녀의 호흡이 거칠다는 것을 암시한다. 클로리스가 위의 말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하게 라이센더의 귀에 불어넣었다”(And breathing faintly in his ear, 24)는 점을 감안하면 클로리스의 호흡이 거친 것은 라이센더에게 힘으로 저항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 자신이 흥분해서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면의 의미(제발 그만하세요)와 실제 의미(제발 계속하세요)가 벌어져도 이 정도로 벌어지기는 쉽지 않다.

클로리스가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영리하게 교섭한다면, 반면에 라이센더는 반대로 사회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과 실제 그 사이의 혼란과 괴리에 난파되고 만다. 사회와 관습은 라이센더에게 정복자가 되어 클로리스를 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떨고 있는 것은 클로리스가 아니라 라이센더이다. 클로리스가 그의 발치에서 정복자의 일격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라이센더가 클로리스의 발치에서 떨면서 누워있다는 것은 연약하고 복종하는 존재가 클로리스가 아니라 오히려 라이센더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 역할의 전도는 남성의 여성 정복을 은유하는 메타포 안에, 즉 공성의 메타포나 종교적 희생의 메타포 안에 은밀히 투입하면서 전통적인 메타포를 내과한다.

자존심과 수치심은 이제 그녀에게 떠나버려,
 그녀 이제 가장 부드러운 즐거움을 준다네.
 사랑의 신성한 화염에,
 처녀의 순수함을 희생으로 바치면서.
 그 와중에 황홀경에 빠진 목동
 희생제의를 수행치 못하고 누워있다네.

Abandoned by her pride and shame,
 She does her softest Joys dispense,
 Offering her virgin innocence
 A victim to love's sacred flame;
 While the o'er-ravished shepherd lies
 Unable to perform the Sacrifice. (65-70)

종교적 희생제의에서 꿈쩍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은 목동이 아니라 양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제의의 황홀경에 빠져 누워버린’ 존재가 클로리스가 아니라 라이센더라는 묘사는 벤이 전통적인 정복과 희생의 메타포를 통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정복하고 희생시키고 있음을 드러낸다.

라이센더는 클로리스에게 그의 남성성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녀와의 성행위에서 그의 성기의 힘을 과시해야 할 뿐 아니라 성행위의 저자로서의 힘을 과시해야 한다”(Zeitj and Thoms 508). 그러나 이미 벤에게서 여성의 역할을 부여받은 라이센더가 성행위에서 정복자의 역할과 이어서 쾌락의 시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 시 기저의 논리적 흐름에 따르면 라이센더의 실패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에게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 겹쳐지면서 그의 실패가 제시되는 것 또한 필연적이다. “그 헛되이 용 쓴다네, 그 헛되이 명령해본다네. / 그래봐야 반응없는 그의 물건 그의 손에서 눈물 흘리며 쓰러져있을 따름이라네”(In vain he toils, in vain he commands; / The insensible fell weeping in his hand, 89-90). ‘라이센더의 남근이 그의 손에서 눈물 흘리며 쓰러져있었다’는 표현은 단

순히 라이센더의 때 이른 사정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 초반부터 지속되어 온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무자비한 성역할의 전도에 따르면, 라이센더의 남근은 마치 순결을 상실한 여성이 수치심 때문에 울듯이 운다. 단지 라이센더의 남근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액을 흘리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라이센더의 치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라이센더의 실패를 본 클로리스가 몸소 라이센더의 축 늘어진 남근에 힘을 불어넣으려 하기 때문이다. 클로리스가 여성이 지니게끔 상징되어 있는 수줍음이라는 것을 털어버리고 라이센더의 이제는 축 늘어진 남근을 애무할 때, 남성의 악몽은 극에 달한다. 여성이 남성의 남근을 애무한다는 것은 여성이 성적 쾌락을 남성에게 요구한다는 것에 다름 아닌데, 이 상황에서 여성이 확인하는 것은 우뚝 선 남근에 의해서 표상되는 남성의 권위가 아니라 축 늘어진 남근을 통해 누설되는 남성의 초라한 실체이기 때문이다.

그녀 슬며시 수줍게 손을
(의도적으로든 우연으로든)
그 엄청난 프리아푸스 위에 올려놓았다네,
시인들이 꾸며낸 그 힘센 신위에.

Her timorous hand she gently laid
(Or guided by design or chance)
Upon that fabulous Priapus,
That potent god, as poets feign. (103-6)

따라서 클로리스의 손에 라이센더의 남근이 반응하지 않을 때, “엄청난”(fabulous, 105)이라는 기표와 절합된 기의도 급진적으로 미끄러진다. (이 표현 역시 성적인 의미가 있음은 부정할 수 없겠다.) 이제 라이센더 더 나아가 모든 남성의 남근은 더 이상 “엄청나지” 못하다. 남근은 ‘실재하지 않거나’ 혹은 ‘우화에나 존재하는’ 남성의 환상과 억압에 의해서 구성된 존재로 확인된다.

『실망』의 마지막은 남성의 수치를 여성 파트너의 아름다움 탓으로 돌린다는 점에서는 에쓰리지의 『이루지 못한 쾌락』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는 그의 탄생, 운명, 별자리를 욕했다네,
그러나 클로리스의 매력을 더 욕했다네,
그 부드러운 마법과 같은 힘이
그를 발기불능의 지옥으로 저주한 그 클로리스의 매력을.

He cursed his birth, his fate, his stars
But more the shepherdess's charms,
Whose soft bewitching influence
Had damned him to the hell of impotence. (137-40)

그러나 에쓰리지의 화자와 달리 라이센더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라이센더는 벤이 집요하게 추진한 남성성의 심문에 의해서 남성으로서의 권위, 언어의 지배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라이센더의 실패는 남성 권위의 실패, 남성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남성의 입장에서 이 시가 끔찍한 것은 이 시가 남성의 권위를 심문하는 데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시의 세계에서 라이센더에게 일어난 참극은 실제로 모든 남성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성의 정체성을 해체하는 “발기불능의 지옥”(the hell of impotence, 140)은 일회성의 역경이 아니라 남성이 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조건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V

벤의 『실망』에서 남성성의 권위, 남근의 권위는 치명적으로 그러나 은밀하게 심문되면서 해체된다. 그러나 로체스터의 『이루지 못한 쾌락』은 은밀하지 않다. 당대 최고의 리버턴 로체스터는 그가 당대 최고의 남성으로 행동했던 것만큼이나 남성성의 위기를 정면에서 마주 대한다. 로체스터의 『이루지 못한 쾌락』에서는 남성들이 이전에 은밀하게 느끼거나 암시하던 위협과 불안감은 정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제시되고 남성성의 파국 또한 급진적으로 너무나 솔직하게 제시된다.

로체스터의 『이루지 못한 쾌락』에서 여성의 수줍음이나 수치심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는 처음부터 남녀간 사랑의 장면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욕망으로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는 장면으로 직진한다.

그녀는 나신으로 누워있네, 내 갈망하는 팔 그녀를 꼭 포옹한 채.
 나는 사랑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온통 매력덩어리.
 둘 모두 갈망하는 정염으로 고무되었고,
 서로에 대한 친절로 녹아가고, 욕망으로 불타고 있다네.

Naked she lay, clasped in my longing arms,
 I filled with love, and she all over charms;
 Both equally inspired with eager fire,
 Melting through kindness, flaming in desire.¹¹ (1-4)

이 장면에서 남성화자는 에쓰리지나 벤의 남성과는 달리 여성을 강제하거나 유혹하는 수고에서 해방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동하니 욕망이 상호적인 만큼, 남성의 성과 함께 여성의 성도 본격적으로 부각되면서 실패의 부담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로체스터는 처음부터 “처녀 같고, 교태부리고 또한 순종적인 여성성의 이상에 반하여 그의 여성을 성행위에서 욕망 있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제시한다”(Lemaster 128). 남성에 의해서 철저히 봉쇄된 필리스나 주도권을 중간부터 쥐기 시작하는 클로리스와는 달리 로체스터의 여주인공은 처음부터 성행위를 주도한다. 이 점에서 남성은 성적 쾌락의 시혜자라기보다는 성행위에 있어 여성의 명령을 받는 존재로 상징되고 있는 셈이다.

큐피드의 작은 번개와도 같은 그녀의 민첩한 혀는
 내 입안에서 놀았다네, 그리고 나에게 재빠르게 명령을 보냈다네,
 저 아래에서 모든 것을 녹이는 번개를
 나 이제 던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Her nimble tongue, Love's lesser lightening, played
 Within my mouth, and to my thoughts conveyed
 Swift orders that I should prepare to throw

¹¹ 이 글은 로체스터의 시에 대한 텍스트로 비쓰(David E. Vieth)의 에디션을 사용하였다. 이후로는 본문 중에 행수만을 표시하기로 하겠다.

The all-dissolving thunderbolt below. (7-10)

“모든 것을 녹이는 번개”(The all-dissolving thunderbolt, 10)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광휘로 세멜레(Semele)를 태워버린(축자적인 의미와 함께 성적 인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제우스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남성의 성적 권위를 상징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이 번개는 여성의 부름에 의해 구동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여성은, 로체스터가 이해하는 한, 성적 쾌락에 있어 남성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 당대 여성 중 한 명이라는 점이다. 로체스터는 자신의 다른 “음란시”(Obscene poems)에서 성적 욕망을 스스로 해결하는 여성을 때로는 비판적으로 때로는 익살맞게 구성한다. 『아름다운 클로리스 돼지우리에 누워있네』(“Fair Chloris in a Pigsty Lay,” 1671)에서 클로리스는 자신의 돼지가 위험하다는 목동의 말에 속아 동굴에 갔다가 그에게 겁탈당하는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처녀성이 관통당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 쾌락의 신음 소리 같은 것을 듣게 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꿈에서 깨자 꿈속의 겁탈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자마자 자위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그녀 놀라면서 깨어나고, 깨어나면서 수음을 하네.
 자연은 그렇게 친절하게 달래준다네,
 그녀의 꿀꿀대는 돼지들이 일으킨 꿈에서,
 그리고 그녀 다리 사이 그녀 자신의 엄지손가락으로,
 그녀는 여전히 순수하고 그리고 만족한다네.

Frighted she wakes. and waking frigs.
 Nature thus kindly eased
 In dreams raised by her murmuring pigs
 And her own thumb between her legs,
 She's innocent and pleased. (35-40)

자위를 하는 여성이 남성 정체성에 가하는 위협은 분명하다. 이 클로리스는 그녀의 성적 쾌락에 있어 “남성은 필요 없이 남성에 대한 생각만이 필요하고, 여성이

갑탈당하기를 원한다는 남성의 환상은 시 안에서 진짜 환상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Wintle 154). 물론 로체스터는 클로리스가 들은 쾌감의 신음이 실제로는 우리 속의 돼지소리였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클로리스의 자위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 클로리스의 엄지손가락이 남근을 대신하게 되면서 전통적으로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성적인 자기충족성은 여성에게 전유되고 만다.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여성에 대한 비판은 「씨뇨르 딜도」(“Signor Dildo,” 1673)에서 되풀이된다. 이 시는 이태리산 고급 딜도를 씨뇨르 딜도로 의인화시켜 이 딜도가 귀부인들 사이에 누린 대인기를 익살스럽게 묘사한다. 당대의 ‘좀 노시는’ 귀부인들을 대거 등장시켜 여성 쾌락의 자기충족성을 비판하는 셈이다. 그러나 또한 이 시에서 도드라지는 점은 비판은 남성에게로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씨뇨르 딜도에게 여성을 빼앗긴 남성들이 씨뇨르 딜도를 쫓는 장면을 묘사하는 시의 마지막 구절은 익살맞으면서 남성이 보기에는 서글프기까지 하다.

레이디 샌디스는 웃음이 터졌다네,
 불알들이 털링대면서 쫓는 것을 보고는.
 불알 무게 때문에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원수는 진짜 씨뇨르 딜도를 거칠게 다루었을 터였다.

The good Lady Sandys burst into a laughter
 To see how the ballocks came wobbling after,
 And had not their weight retarded the foe,
 Indeed 't had gone hard with Signior Dildo. (89-92)

남성들이 털링거리는 불알 때문에 씨뇨르 딜도를 쫓는 데 실패했다는 이 구절은 남성들이 회화화된 모습을 연상시키기에 희극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남성들에게서 부각되는 것이 남근이 아니라 남근 밑의 불알뿐이라는 점에서 이 구절은 ‘거세’라는 남성 최대의 공포를 은근히 암시한다.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루지 못한 쾌락」에서 로체스터의 화자는 여성과의 성행위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다. 여성이 성적 쾌락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여성에게 성행위의 주도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여성에게 명을 받아 자위나 딜도보다 훨씬 양질의 성적쾌락을 선사해야 한다는,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쓸 만한 남성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보다는 여성의 욕망에 봉사해야 하는 상태에서, 그리고 확실한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껏 봉사해봐야 ‘참 잘했어요’하고 귀여움이나 받을 상황에서, 그리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봉사를 명하고 있는 상태에선, 로체스터의 화자 더 나아가 모든 남성의 남근은 기를 펼 수가 없다. 그래서 로체스터의 화자도 다른 시의 남성처럼 “문전처리 실패”의 운명을 피해가지 못한다.

그러나 그녀의 바쁜 손이 그 부분을 인도하려는 순간,
 내 영혼을 그녀의 심장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부분을 인도하려는 순간,
 난 축축한 황홀경으로 녹아버린다네,
 정액으로 녹아버리고 모든 구멍에서 소진되어 버린다네.
 그녀의 어느 부분이든 나를 건드려 이렇게 되어버렸다네.
 그녀의 손, 발, 그리고 그녀의 얼굴 자체가 성기이니.

But whilst her busy hand would guide that part
 Which should convey my soul up to her heart,
 In liquid raptures I dissolve all o'er,
 Melt into sperm, and spend at every pore.
 A touch from any part of her had done't:
 Her hand, her foot, her very look's a cunt. (13-18)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주목할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여성이 남성의 남근을 움켜쥐고 결정적인 장소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위(정신적 그리고 육체적으로)에 군림하면서 여성을 마음대로 농락하는 와중에 여성에게 짜릿한 쾌락을 시혜한다는 남성의 로망은 여기에 없다. 여성은 이제 더 이상 쾌락의 객체도 아니고 쾌락의 동반자도 아니다. 여성이 쾌락의 주체이고 남성은 객체로 전락한다. 이 구절에서 또 주목할 점은 남성이 객체화되면서 남성에게서는 그의 남근만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성행위의 주체가 되면서 그녀의 모습 전반이 포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 특정한 지점으로 폼하되던 현상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로체스터의 여성은 수줍어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에게는 무서운 존재이다. 그

너는 처음부터 솔직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하고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 직설적으로 남성을 힐난한다.

내 헐떡거리는 가슴을 수많은 키스를 하면서 쓰다듬고는,
그녀 소리친다네. “이제 더 없는 건가요?
이 모든 것이 사랑과 황홀의 몫이에요,
우리는 쾌락에도 빚을 갚아야 하지 않나요?”

When, with a thousand kisses wandering o'er
My panting bosom, 'Is there then no more?'
She cries. 'All this to love and rapture's due;
Must we not pay a debt to pleasure too?' (21-24)

우리 모두 쾌락에 빚을 지고 있지 않냐는 이 여성의 힐난은 자신의 빚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솔직히 밝히고, 동시에 남성의 빚을 지적함으로써 성행위에서 남성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성행위는 남성에게 즐거운 정복이 아니라 괴로운 의무로 전화되어 버린 셈이다. 그렇지 않았던 좋은 시절이 있었다고 로체스터의 화자는 지난 날을 회상한다. 자신의 남근이 실제적 힘으로 남성의 추상적 권능을 추동하던 그런 시절, 남성 여성 가리지 않고 모든 욕망의 대상에서 여성 성기를 찾아내거나 만들던 그래서 남근에게 창조적 권능이 있었던 그런 시절 말이다.

이 사랑의 화살은, 그 꿰뚫는 촉을 자주 사용하여,
수많은 처녀를 처녀성의 피로 물들였소.
예술로 천성을 그렇게 인도해서
그것은 모든 음부를 통해 심장에 이르렀었소.
딱딱하게 결심하곤,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침범했소,
여성과 남성을, 그리고 어느 것도 그것의 분노를 막지 않았소.
그것은 꿰뚫은 곳 어디에서나 음부를 찾거나 만들었지.

This dart of love, whose piercing point, oft tried,
With virgin blood ten thousand maids have dyed;
Which nature still directed with such art

That it through every cunt reached every heart—
 Stiffly resolved, 'twould carelessly invade
 Woman or man, nor aught its fury stayed:
 Where'er it pierced, a cunt it found or made—(37-43)

그러나 연이은 두 행에서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불행한 시각에 얼마나 축 늘어져 있는가, / 시든 꽃처럼 쪼그라들고 생기를 잃은 채”(Now languid lies in this unhappy hour, / Shrunken up and sapless like a withered flower, 37-45). 남근은 이제 더 이상 강력한 힘과 권위의 상징이 아니라 여성의 상징인 꽃, 그것도 시든 꽃으로 확인된다. 남근이라 쓰고 꽃이라 읽는다.

『이루지 못한 쾌락』에서 남성의 실패는 변명 없이 제시되기 때문에 끔찍하다. 일시적인 것이라는 등, 여성이 너무 수줍어해서 힘쓰다가 그렇게 되었다는 등,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랬다는 등 남성의 실패에 대한 전통적인 변명 혹은 책임 전가는 로체스터의 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로체스터에게 남성의 실패는 남성 정체성에 더 나아가 존재의 근거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발기불능에 대한 로체스터의 기술은 그것이 특별한 상황의 일시적 결과라기보다는 인간 존재의 불가피한 조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다(Fabricant 348).

남근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 상실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거나 회피할 마땅한 전략이나 방법이 없다는 인식 앞에서, 로체스터의 화자는 무너진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남근을 분리하고 자신의 남근에게 저주를 퍼붓는 광기의 상태에 빠져든다.

나의 가장 형편없는, 그래서 가장 증오되는 부분아,
 온 시내에서 가장 공용되는 성교의 말뚝놈아,
 돼지들이 문살에 비비면서 꿀꿀대듯이,
 창녀들이 간지러운 음부를 해소하는 이놈아,
 네 이놈 지독한 매독에나 걸려라,
 혹은 고름이나 질질 흘리면서 죽어버려라.
 배뇨곤란이나 결석이 네놈을 내내 쫓아다니길.
 내 모든 쾌락이 배반자 네놈에게 달려있을 때
 힘쓰길 거부한 네 이놈, 결코 오줌 누지 못하길.

Worst part of me, and henceforth hated most,
 Through all the town a common fucking-post,
 On whom each whore relieves her tingling cunt
 As hogs do rub themselves on gates and grunt,
 May'st thou to ravenous chancres be a prey,
 Or in consuming weepings waste away;
 May strangury and stone thy days attend;
 May'st thou ne'er piss, who did refuse to spend
 When all my joys did on false thee depend. (62-70)

이 화자는 자신에게 욕을 퍼붓지 않고 자신의 남근에게만 욕이 향하게 함으로써 자신과 남근을 분리한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자신의 남근이 자신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즉 “자신과 자신 성기 사이의 이상하고 그로테스크한 분리”를 구상함으로써 화자의 광기는 구성된다(O'Neill 135). 그러나 화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겠다. 남근을 여전히 자신의 핵심적인 기표로 간주한다면 남근의 실패는 곧 자신의 실패로 확장된다.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남근을 자신에게서 분리해서 남근의 실패를 모면할 것인가? 화자는 후자를 택한다. 화자는 육체적인 불능의 상태에서 정신적인 거세를 택함으로써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성이기를 포기한다.

시의 마지막 두 행에서 화자는 이제는 떨어져 나간 실패한 남근 대신에 다른 능력 있는 남근이 (드디어 이름이 밝혀지는) 코리나(Corinna)를 대신 만족시켜줄 것을 기원한다. “수많은 능력 있는 성기가 / 네놈 대신 배반당한 코리나에게 보상해주기를”(And may ten thousand abler pricks agree / To do the wronged Corinna right for thee, 71-72). 이 행들을 코리나의 욕망을 인지한 그래서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채울 권리를 인정한 구절로 읽을 수도 있겠다. “코리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녀의 잘못된 처우에 대한 화자의 염려”가 이런 기원의 뒤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Lemaster 133).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읽기에는 “수많은 능력 있는 성기”라는 표현이 거슬린다. 수많은 남근이 코리나를 만족시켜주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원은 오히려 남근적 질서(phallic order)를 붕괴시키고 남성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한 여성의 몸, 그리고 여성의 성적 방종(promiscuity)에 대한 독설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많은 남근이 남성의 몸에 붙어있는 그것인지, 덜도

인지, 아니면 여성의 엄지인지도 불분명하다. 화자가 겪은 실패를 감안하면 이 남근이 남성의 몸에 붙어있는 그것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루지 못한 쾌락』에서 “여성의 몸은 남근적 질서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고, 여성의 에로티씨즘은 그것을 희미하게 하고 없애려고 고안된 남성의 성 경제(sexual economy)를 위협한다”(Weber 208).

VI

그렇다면 이 글에서 다루어진 세 시 모두 남근의 실패가 남성 정체성의 위기로 확장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하지 못한다. 오히려 벤이나 로체스터의 시들은 의도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야기하고 확장하거나 위기의 실체를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벤의 시나 로체스터의 시들이 이전의 “이루지 못한 쾌락” 시들과 구분되는 것은 여성의 능동적인 욕망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여성은 남성에게 의해 달구어져서 욕망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당당하게 욕망을 가지고 행동한다. 이런 점에서 벤의 클로리스나 로체스터의 코리나는 남성에게 그리고 남근에게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남근은 쾌락의 시혜자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여성의 욕망이 확인된 근대의 여명기에 남근은 “남근”(phallus)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고추”(penis)로 돌아온 셈이다.

그런데 남근에 기초한 남성 정체성의 위기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 논리의 모순에 의해서 스스로 붕괴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발기불능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방지해야 하는 남근중심주의에 의해서 야기된다. 여성이 이 지점에서 한 일은 남근의 힘에 기반해서 서술된 정체성의 한계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 단지 촉진시킨 것이다”(Coltharp 17). 영국 왕정복고기에 남근이 리버틴들의, 더 나아가 남성 전체의 권위의 원천으로 부각된 순간 남성의 위기는 전면화된 셈이다. 남근중심주의는 실재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봉쇄함으로써, 엄존하는 여성의 욕망을 괘호쳐 둠으로써 가능했다. 여성의 침묵에 기반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듯이 남근들이 발호하려던 근대의 여명기에 때맞추어 여성들의 말씀이 계셨다. ‘우리도 성욕이 있어요.’ 그 말

숨 한 방에 남근중심주의는 그 근간이 무너져버린 셈이다.

주제어 |

인용문헌

- Anon.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upon Several Occasions by Several Persons*. London, 1672.
- Braudy, Leo. "Remembering Masculinity: Premature Ejaculation Poetry of the Seventeenth Century." *Michigan Quarterly Review* 33 (1994): 177-201.
- Coltharp, Duane. "Rival Fopps, Rambling Rakes, Wild Women: Homosocial Desire and Courtly Crisis in Rochester's Poetry." *The Eighteenth Century* 38.1 (1997): 23-42.
- Fabricant, Carol. "Rochester's World of Imperfect Enjoyment."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73 (1974): 338-50.
- Lemaster, Tracy Wendt. "Lowering the Libertine: Feminism in Rochester's 'The Imperfect Enjoyment'." *And Never Know the Joy: Sex and the Erotic in English Poetry*. Ed. C. C. Barfoot. New York: Rodopi, 2006. 123-34.
- O'Neill, John H. "Rochester's 'Imperfect Enjoyment': 'The True Veine of Satyre' in Sexual Poetry." *John Wilmot, Earl of Rochester: Critical Essays*. Ed. David Vieth. New York: Garland, 1988. 129-48.
- Ovid. *Heroides. Amores*. tr. Grant Showerman. rev. G. P. Gould. Loeb Classical Library. 2nd edn. Cambridge: Harvard UP, 1977.
- Petronius. *Satyricon*. Seneca. *Apocolocyntosis*. tr. Michael Heseltine and W. H. D. Rouse. rev. E. H. Warmington. Cambridge: Harvard UP, 2005.
- Phillips, John, ed. *Wit and Drollery*. London, 1682.
- Quaintance, Richard E. "French Sources of the Restoration 'Imperfect Enjoyment' Poem." *Philological Quarterly* 42.2 (1963): 190-99.
- Todd, Janet. *Aphra Behn: Oroonoko, The Rover and Other Works*. London: Penguin, 1992.

Vieth, David, ed. *The Complete Poems of John Wilmot, Earl of Rochester*. New Haven, Yale UP, 1968.

Weber, Harold. “Charles II, George Pines, and Mr. Dorimant: The Politics of Sexual Power in Restoration England.” *Criticism: A Quarterly for Literature and the Arts*. 32.2 (1990): 193-219.

Wintle, Sarah. “Libertinism and Sexual Politics.” *Spirit of Wit: Reconsiderations of Rochester*. Ed. Jeremy Treglown. Hamden, Conn: Archon Books, 1982. 133-65.

Zeitz, Lisa M. and Peter Thoms. “Power, Gender, and Identity in Aphra Behn’s ‘The Disappointment’.” *SEL* 37 (1997): 501-516.

전인한. 『스스로에게 만든 지옥: 로체스터 시에 구성된 몸쓸 사랑의 좌절』. 『18세기영문학』 5.1 (2004): 97-138.

ABSTRACT

**Modernity and Male Sexuality:
“Imperfect Enjoyment” Poems and the Crisis of Masculine Identity**

In-Han Jeon

This paper purposes to investigate the crisis of masculine identity projected in the so-called “Imperfect Enjoyment” poems written in the Restoration period. This paper argues that some English versions of “Imperfect Enjoyment” poems go further in revealing male anxiety while describing the unfortunate incident of “premature ejaculation” than its Latin and French counterparts. In Latin and French counterparts, this paper argues, male sexual debacle is presented as temporary thus recoverable though humiliating, so it does not put fundamental questions on the male authority based on the potency of “phallus.” However, this paper points out that some English versions of “Imperfect Enjoyment” poems relate the male debacle with the crisis of male sexuality and masculine identity in that these poems regard the failure of phallus not as temporary but as fundamental.

George Etherege’s “Imperfect Enjoyment” dodges the male crisis as neatly as possible by employing metaphoric devices that distance the male debacle from the fundamental male crisis and, in so doing, by silencing female voice. Yet, this paper argues, the success of these strategies is temporary and limited as the success is only functional in the realm of poetic rhetoric monopolized by a male poet. In Aphra Behn’s “Disappointment,” male anxiety is exploited to the full and the crisis of phallus and masculine identity is realized as the authority and potency of male phallus is found groundless and the male sexual role and the female one are radically reversed. In this poem, the male becomes the female as

his phallus cannot perform its promised function.

This paper finds the fundamental doubt on male sexuality in John Wilmot, Earl of Rochester’s “Imperfect Enjoyment.” In this poem, female sexual desire comes to the fore, thus making the female not as beneficiaries of male sexual desire but as sexually autonomous beings. In so doing, this poem sees the failure of phallus as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male existence. This poem, this paper finally argues, takes male authority and the phallic myth into pieces, painfully recognizing males as beings stranded in the world where they are deprived of the power of their illusory phallus while females are demanding sexual gratification.

Key Words | Imperfect Enjoyment Poems, George Etherege, Aphra Behn, John Wilmot, Earl of Rochester, “Imperfect Enjoyment,” “Disappointment,” male sexuality, masculine identity, phallus